

스포츠 / 건강



농구부는 지난 3일 열린 단국대 전을 승리하며 전반기 9승 1패의 성적을 거뒀다

주력선수 부상에도 전반기 1위

2015-1 농구부 결산

강경진 기자 cocoandlisa@khu.ac.kr

농구부가 지난 3일 단국대 전을 61-58로 승리하며 ‘2015 남녀대학농구리그’ 전반기를 1위(9승 1패)로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에서 12점 열세를 역전할 만큼 농구부의 기량은 출중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시즌 초반부터 농구부는 갑작스럽게 전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핵심전력으로 꼽혔던 김철욱(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리그 첫 경기를 3일 남기고 무릎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건주(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지난 3월 발목부상을, 맹상훈(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는 5월 19일 건국대전에서 손목 부상을 입었다. 결국 김철욱 선수와 성건주 선수의 부재로 센터진에 공백이 생겼고, 속공플레이를 주도했던 맹상훈 선수의 부상은 큰 위기였다.

그러나 농구부는 이런 위기를 스피드와 호수비로 극복했다. 지난 5월 27일 열린 경기에서 성균관대는 속공득점을 2개 성공한 반면 우리학교는 13개를 성공했다. 특히 한희원(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이 경기에서만 6개의 속공득점을 올렸다. 또한 골밑에서는 지역방어와 대인방어로 빠르게 전환하며 효과적인 수비전선을 구축했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다섯 선수가 함께 공격에 가담해 패스회전율을 높이고 속

공플레이를 하는 것이 이번 시즌의 주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체력이 강해졌기에 가능한 작전이었다. 농구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만에서 진행된 동계훈련에서 새로 부임한 김익겸 체력코치를 중심으로 파워,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을 보강하고 저녁운동 시간에는 개인기 연습에 매진했다. 이번 시즌 총 200득점으로 경기당 평균 20점을 득점한 한희원 선수는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 급하게 돌아하고 공격하는 습관을 고쳤다”며 “무빙샷 연습을 통해 득점성공률도 높였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혔던 주전, 비주전 선수간의 기량 차도 줄었다. 주로 저학년으로 이뤄진 비주전 선수들이 전술에 투입되었을 때 불협화음을 내지 않도록 전술훈련에 집중한 결과, 지난 4월 27일 단국대전에서 정지우(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6분간 2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며 팀을 승리 이끌었다. 이민영(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는 6월 3일 진행된 단국대전에서 16득점을 올렸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1패를 기록한 연세대전에서 드러난, 강한 센터진을 상대할 때의 한계는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4일 열렸던 연세대와 경기에서 우리학교는 25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한데 비해, 연세대는 2배인 50개의 리바운드를 따냈다. 201cm의 장신인 연세대 최준용(스포츠레저학 2013) 선수가 잡은 리바운드가 25개로 우리학교 전체 리바운드 수와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우리학교 성적		
일시	상대	결과
3.23	연세대	71-57(승)
3.31	성균관대	66-56(승)
4.7	건국대	79-69(승)
4.13	상명대	69-58(승)
4.27	단국대	75-65(승)
5.4	연세대	66-70(패)
5.13	상명대	73-46(승)
5.19	건국대	79-71(승)
5.27	성균관대	75-56(승)
6.3	단국대	61-58(승)

동일했다. 우리학교는 최장진 선수가 6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연세대 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학교의 경기당 평균 리바운드 수는 39.10개로 12개 팀 중 9위에 해당한다. 리바운드 수 1위인 고려대와는 무려 11.26개 차이다.

농구부는 이번 하계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감독은 “센터가 없어 언제나 각자 전술의 극대화가 남은 시즌을 판가름할 것이다”고 말했다. 속공과 수비만으로 근본적인 신장 차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중·고등학교 선수 시절 센터였던 이성순(스포츠지도학 2013), 이건희(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김철욱 선수를 대신해 센터로서의 기량을 키워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오는 8월 28일 한양대 전을 시작으로 후반기가 진행된다.

4일, 학내 메르스 확진자 소문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져

메르스 확진환자 소문 해프닝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내에서도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저녁부터 불거진 ‘국제캠퍼스 메르스 확진자’에 관련된 풍문은 교육대학원 학생의 문자에서 비롯한 단순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교육대학원 행정실 최필호 행정실장은 “지난 4일 저녁, 오후 6시 30분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해당 수업 강사에게 ‘본인이 메르스 확진자라 발표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대학본부와 휴강 및 접촉대상 격리조치 등의 사안들을 받 빠르게 논의하던 중 학생 본인으로부터 ‘사실 확진자는 아니고 몸이 좀 안 좋았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대학원 행정실 측은 지난 5일 오후 ‘메르스 확진자가 아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부 대학원생들에게 전달했다. 긴급히 논의되던 각종 휴강관련 사안들은 오늘 오후 3시 모두 종료됐다.

지난 5일 저녁에는 한국외대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현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경희의료원 응급실에 확진환자가 머무르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외대 독립언론 ‘외대알리’에서 해당 게시물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공포가 더 커졌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희의료원 측은 “지난 2일 메르스 의심환자가 찾아왔으나, 기본적인 검사 결

- 생활 속 예방 수칙
- 물과 비누로 자주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을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재치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과 메르스 증상이 아니어서 귀가조치 시킨 일만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희의료원은 열감지 기구를 2개 설치해 관련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있으며, 이밖의 출입구는 폐쇄한 상태다.

이후 한국외대 총학생회와 외대알리도 각각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 측은 사과문을 통해 ‘미숙하고 경솔했다. 메르스라는 끔찍한 사안 앞에서, 빠르게 소식을 전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조급함과 욕심이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보다 앞섰다’며 경희의료원과 우리학교에 직접 찾아 사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메르스 우려’로 인해 국제캠퍼스 대학의소리 방송국은 지난 5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 34회 방송제를 취소하기도 했다.

현재 양 캠퍼스 건강센터는 메르스 관련 공문을 발송해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학생의 경우 모두 소속 행정실에 반드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밖에도 ‘메르스 홍보물’을 강의실마다 부착해달라고 전했다. 국제캠퍼스 건강센터 측은 “아직까지 메르스 환자로 실제 보고된 경우가 없었다”며 “잘못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공식적인 발표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건강센터 측은 소문보다 공식적인 발표를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